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- 2017.11.20. 정부서울청사

두 번째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및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엿새째입니다. 여진의 횟수는 경주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, 오늘 아침에도 3.6규모의 여진이 발생해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날씨도 추운데, 불편과 불안을 계속 겪고 계시는 포항 시민 여러분께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정부도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도 꽤 긴 시간 이런 불편이 계속되겠지만, 포항시민여러분과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.

그동안 먼 곳에서 포항까지 달려 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방송사들을 비롯해 성금 모금 운동이 시작됩니다. 저도 앞장서서 동참하겠습니다만,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국민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이 포항시민들을 덜 외롭게 하고 덜 어렵게 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호소 드립니다.

그리고 지진 사후 대처에 몰두하고 계시는 포항시의 공무원을 포함한 경북도, 중앙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. 정부는 지진이 난 바로 다음날 40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포항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,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심의해서 대통령께 재가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. 이제 남은 문제는 임시거처의 빠른 정비, 확보 그리고 수능의 현명한 관리 등등이겠습니다.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라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을

것입니다. 건물의 내진설계와 같은 문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. 한꺼번에 모든 걸 다하기는 어렵겠지만,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계별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